2019년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기후퇴를 맞이하게 될것이다.

앞서 지난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.1%라는 OECD국가들중에서도 5위를 할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런 단기적인 쾌거에 취해 있을 수 없다.

한국경제는 앞으로 선·후행 지표가 온통 빨간색이다.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3월 가동률이 70.3%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이며 생산과 투자 또한 부진하다. 당장 3월의 전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전달대비 각각 1.2% , 7.8% 줄었고 건설투자 또한 4.5% 감소했는데 , 이는 지난해 14.6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설비투자가 기존 증설 설비에 대한 조정, 금리상승,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올해 3.0%로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상에 힘을 보태주고 , 따라서 지난해만큼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나올 수 없을 뿐더러 , 건설투자의 경우 이미 -0.1% 라는 수치의 둔화 추세에 진입하였기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침울할 예정이다.

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경제가 활성화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도 있지만 , 실질적으로 이번과같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의견과 예상이 대다수이며. 최저임금과 관련된 업종중 하나인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수는 1.5% 약 6만8000명이 나 감소하여 오히려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. 이러하듯 고용상황이 안좋은쪽으로 치닫으며 '10년 주기 금융 위기설'이 부각되는 등 우리나라가 경기침체 초입단계에 들어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.